

글. 김성환_ Kim, Sung-hwan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얀겔 _ 걷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축사

Jan Gehl ; Architect who makes cities for walking

건축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전, 도서관에 수많은 건축사들의 서적과 도면들을 보면서 컴퓨터 그래픽과 화려한 건물들에 도취되어 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선배들이 지금까지 그려온 도면들과 모델을 가지고 오라며 필자의 동기들을 불러 모았고, 동기들 모두는 긴장하고 각자의 모델과 도면을 들고 작업실에 삼삼오오 모였다. 각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자기 작품에 빠져 생각을 펼쳐 나갈 즈음, 선배 중 한 명이 조용히 나와 자신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모든 모델을 관찰하고 난 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모델들이 실제 우리 몸에 맞는 적합한 비례일까?”라고 한마디를 던졌다. 보이는 것에 취해 기본을 간과하던 나에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매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줬다.



이번에 소개할 건축사는 덴마크 출신의 얀겔(Jan Gehl)이다. 르 꼬르뷔지에가 정의한 현대건축의 시작을 이끌던 1960년대, 그는 자신이 공부하고 즐기던 건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덴마크 왕립 미술학교를 졸업하던 당시, 그가 경험했던 주류 건축은 자신의 눈에서 볼 때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닌 대량생산과 기계문명에 크게 영향을 받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더욱이 심리학자인 아내를 만난 이후로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은 더욱 커져 갔다. 그는 실제로 현대건축,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실무를 경험한 후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등을 돌며 연

구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 둘씩 만들고 정립해 나갔다. 이는 1920년대 르꼬르뷔지에가 제안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거대한 건축물 중심의 사회체계에 대한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장이었다.

그 시작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롯된다. 예로부터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현저히 많은,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 지배하는 도시 안에서 거의 모든 집들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다. 얀겔의 건축철학은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 어려운 말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충실한 주제로서 사람 중심의 도시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아시절부터 자전거 타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도시 안에 정적인 공간 만들기,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구조로 바꾸기 등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제안들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곳은 지구촌 사람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다. Jan Gehl이 처음 뉴욕 타임스퀘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을 때, 뉴욕시 당국은 “자동차로 통근하는 양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나 지하철의 이용을 늘리고 뉴욕시민을 걷게 하자”는 개념 아래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당시 Jan Gehl의 생각은 이렇하였다. 만약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인 뉴욕,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타임스퀘어에서 자신의 기초적인 생각과 철학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도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의식이 밑바탕에 있었다. 그는 타임스퀘어를 바라보며 고향 코펜하겐이 지난 50년 동안 가꿔온 자전거길을 5년 안에 뉴욕의 보다 많은 곳에서 보는 꿈을 꾸었고, 그 시작이 바로 상징성이 매우 강한 장소인 타임스퀘어였다. 그는 타임스퀘어 거리 위에 도보공간을 효율적으로 제안한 후, 큰 공사 없이 정확하고 간단한 공간계획을 그대로 실행시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다.



2



3



4

이렇듯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의 작업에는 할머니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an Gehl은 실제로 할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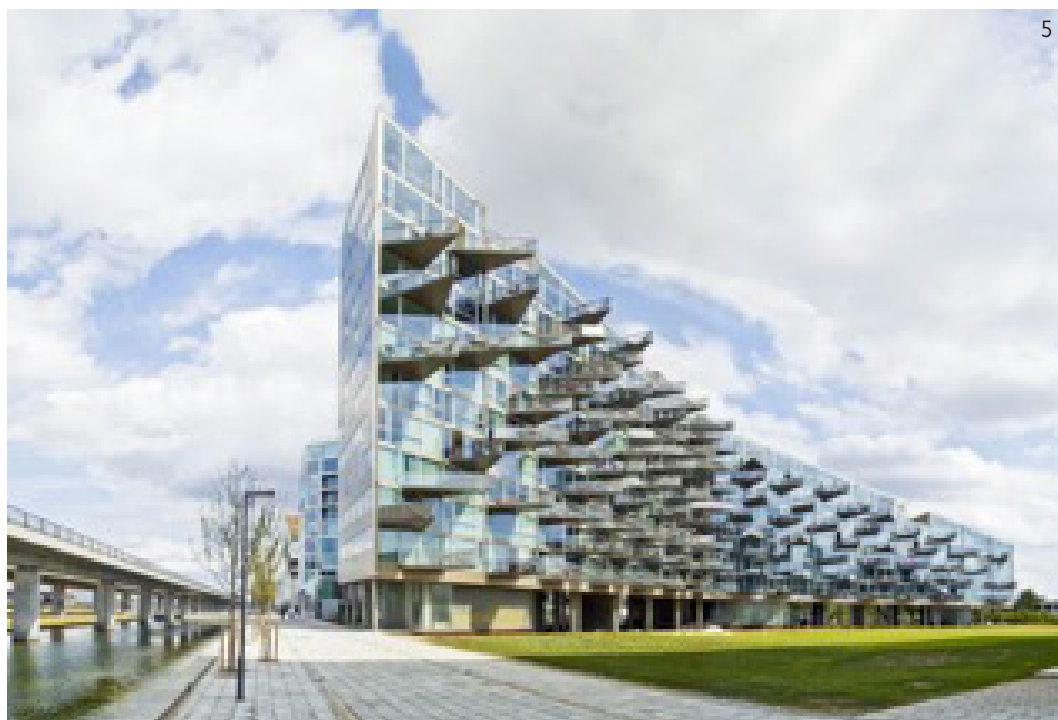
“밖에 나가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보고 실제 생활에서 배워라. 창밖을 내다보고 거리와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관찰해라.”

Jan Gehl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많은 시간을 걸다니며 삶과 주변을 빌딩사이에서 공부했다. 40년간 지속된 행동에 대한 관찰은 이론적인 연구보다 더 깊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그는 글을 쓰는 것이나 읽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천부적인 재능은 항상 ‘그가 혹시 유명 건축사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새로이 생기는 건물들은 항상 높아져만 가고 대단위 건물집단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는 ‘브라질리아 신드롬(Brasilia Syndrome)’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려한 도면이나 건축적인 3D에서 가져오는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나 공간의 창조성은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을 세분화시켜 이야기하며 그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나는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와 아주 특별한 친구다. 처음에는 그의 작업을 일반인에게 무감각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며 배려 없는 자세로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항상 나에게 와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이전의 작업들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어느 날인가, 그의 사무실에서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그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가 적힌 메모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표지에 ‘Bjarke는 Jan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난 40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감성적인 태도와 이성적인 관찰이 한곳에 어우러진 그만의 작업방식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집을 아집이 아닌 생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사람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노력했다.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능과 노력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성실하게 이루고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속제다.



5

- 1_ 건축사 안겔(Jan Gehl)
- 2_ 뉴욕 타임스퀘어
- 3_ 브라질리아 근대도시(Brasilia Modernist City_Skyscraper City)
- 4_ 호주 멜버른의 사람 중심의 가로 (People-sized street in Melbourne_Buytaert)
- 5_ VM Houses_BIG (Bjarke Ingels Group)